



서울대학교 向遠會報

發行人 崔 主 鎭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韓 鍾 愚

發行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 ~ 5, 717-8536 ~ 7

●銀行支票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사진 : 鷄龍山 隱仙峯

暴炎을 씻어내는 하얀 물줄기……

그러나 이 三伏여름을 슬기로운 사람들은 산으로 간다. 슬기로운 처럼 들리지도 않고 진한 태양 속바로 빛에 시달리도 없이 고요 속에 무盡藏으로 공급되는 酸素가 都會의 결죽해진 괴를 선명하게 걸려주 도를 탁한 곳에 찌들어 거무결국은 太古의 소리. 讀經 소리. 神禪 三昧에 든 스님들의 고요 音樂山). 爽音을 풀에 품고 있으면서도 늘 아무일도 없듯 泰然自若한 그것이 산이다. 그래 예로부터 王子는 삶을 좋아했다는 보다 (君子樂山). 물물물물 물물을 치솟아 떠나는 만이 크다면 우람하길 할지 양정 불풀이 없으려고 산의 산다운은 불여리와 奇巖怪石이 적설되어 있고 나누와 있을 때 아기자기한 마이 있다. 일본의 산들처럼 놓고 커다랗게 나온 무만이 우거진 肉山보다는 仁壽처령한 푸른 산들이 해물간 바위가 세차게 치솟아 열려보내는 하늘을 쓰다듬고 있는 것이 열려보내는 그야 民族의 祕緒스러운가 發祥源인 白頭山처령한 시 넘쳐 흐르는 天池을 정수리에 절들을 거울한 산은 세계에 그 類흘며

灼熱하는 八月 유난히도 물의
한이 그리워지는 季節이다 海雲
꼴없이 떨쳐진 흰 모래 沙場에 바다의 시원
저쪽에서 어오는 野馬처럼 물풀들을 말려 들
다리미로 다리듯 모래를 매단하게 손
질하면서 미련도 없이 난마다 쓸려
나간다. 長安 義湘臺 밀 바다를 보았는가。
동해안 못 해 차라리 걸은 빛을 떤 그
푸르다. 길은 물이 널널실 다가온다 바위에
길을 물에 높잡아 흰 물거품을
부딪쳐 삽시간에 뿐이며 하늘로 치솟아 흩어지는 모습
놓으며 하늘로 치솟아 흩어지는 모습
말이다. 거대한 自然의 술결이다.
喜怒哀樂이 벌벌이 무수한 홍
울음을 남기는 인간들이 다 빼고,
자연 상태로 돌아간 저녁 바다에
하늘과의 對話 밤새 狂亂에
지쳤던 사람들이 전 채 나오지 않
의 해도 해를 이마 바다의 清新한
슬픈 하늘이 바다의 열린 학 것 新
분명하다. 해를 끌고 가기 바다의 열린 학 것 新
좋다. 끌고 가기 바다의 열린 학 것 新
줄며 끌고 가기 바다의 열린 학 것 New

瀑布는 부른다

을 이룬 緑陰에 헛빛이 차단되어 한
여름도 서늘하다.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는 크고 작은
폭포가 있게 마련이고, 폭포가 있으면
밀에는 물이 충충 고여 빙빙 도
는 그런 情景을 흔히 만난다. 智異山
밴사골에는 그런 沼澤들이 수없이 많다.
遊山歌에 이런 層巖絕壁上에 瀑布水는 나온다.
드린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골 물이 한데
물이 험한 핵에 지방져 소고리지고 저건너屏
평펴져 넉출지고 밤풀져 물결 물결 물결 물결
風石으로 으르렁 활활 흐르는 물결 물결 물결 물결
이 銀玉같이 흘러지니 :: 흘러지니 :: 흘러지니 :: 흘러지니 ::

40여
星系의
온라인
친구들
교響樂團
연주회가
2019門
다가왔다
우리에게
아름답게
그리고
조용하게
앞으로
여덟
주제는
오늘
8월29일

(화요일) 오후 8시에
서울大人的 공통체의
식 고취 里科大學 동
문간의 現金대 협성금
유대 강화 동침회 基金
造成 아름다운 和音의 막을 올
창조로 밝고 전전사자 린다.

한국의 일인을 담는 것이 이는
번연주의 독적이다.
이번 연주회는 특별전의 일인을 담는
번연주의 독적이다.
이번 연주회는 특별전의 일인을 담는
번연주의 독적이다.

音樂界의 큰일이라고도 하거나, 아니면 행사일인 점을 감히 「自負한다」고 하면서 「문화회에서는 알 것으로 이 예주회를 해행사의 하나로 추진하여 계속 돌문화 회합과 축제를 축하하는 면에 전시켜 나갈 주제로는, 국내의 권위 있는 연예인들로

로서
모처럼
수준높이

「大學祝典 서곡」

5번 A 장조

지휘 李南洙 · 악장 金旻 교수

8월 29일 「芸術의 殿堂 콘서트홀」에서 만남시다

89 同門交響樂團 연주회
20일 앞으로

經營大學院同憲會(회장
장 李孝益)는 지난 7월 1일 오후 3시
캠퍼스 교수회관에서 금년도
정기總會를 개최하고 임기만료된
장 (삼여기 재조사장)을
제선했다.

올주算
2천4백만원
학전(

李孝益회장등 任員陣 대부문 留任

총무부에
경리에 金春澤 (師大)
감사에 許遠雄 (工大)
이승조 (大學院)
동물부를 각각
총회가 설립했다.
총회장과 풀난후에는
제교관
기바베큐와 함께
운전치를 불고
한국 멘토지부에서 빼면
에서는 대

입원전의 구성과 함께 회비 2년 달려를 구독료조로 송금해 왔다.
동창회보 장 임승재(鄭仁昇齋)에서는 지난 5월 20일 본회 회장대정전을 축제 개최 했었다.
회원다수가 운데 있는 이날 대회에는 일제의 혁명이 회장에는 일제의 속도동문(文理大) 이 메리스트는 갈준원 동문회

장기·바둑대회開催
지난달 18일 同窓會館서 열전
師大同窓會(회장 朴智)
光化門 소재 사대동창회관에서 제12회 바둑·장기 대회를 개최했다.
朴智洙회장을 비롯하여

△기인=조별주 △기현=이재
△B조 △기성=배성우
△기인=이석구 △기현=이봉준
△아차상=김명나

멜본(豪洲)支部 定總 성료
새 會長에 金憲學 동창 선출

(工大)。
그리고 근접상에는 최
경선통문(農大)이, 장타통
문에는 이성덕통문(齒大)
이, 행운상에는 최재항통
문(工大)이 각각 차지
했다.

한국	한국	한국

까지 소급해서 그 예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되도록 우리 한반도를 그들이 명기하지 하려는 전시체로 둘러, 부득이 당초 대청설에서 있었던理工學部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리라.
그리고 노니 나도 열세살 기에 청성제대 이관학부 창설 5주년 기념연가 해서, 小公洞에 있었던 公會堂(제3회 서울工商會議所大會)에서 학술강연회가 있어서였던 생각이 다온다.

自然科學大學

理科大學에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과 文
의 자연과학대학의 離科과에 있다. 즉, 오늘
대학 理學부가 1956년 3월
서울대학교 기구 개편에 따라
라 천연과(理天科) 밸런
태를 갖추기 위해 이로운 대학이다.
그리고 문리대학 이화
부는 理科대학으로 理科
部(-1938년 8월 개설)이

그전기에 대서 화학과에서
비롯한 문화대 이화부가자
었던 고종석 박사는 張世
惠교수 (전 대학교원장)이
을大學校 學問研究 40年 (1900-
에서 化學科의 전학을
로하여 다음과같이 회고하
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化學科』 1
9 4 6년 국립 서울대학교
의 설립과 동시에 구 경
성대학 理工學部 化學科로
도체로 하여 교육부에 제출
된다. 전설대학의 이관우부부자
체가 설립된지 일정한 때
으로 대체로 시설이 서둘러
어디지 못된다. 신설대학의
교조주자 미군에 진급되는
있었던 탓으로 구 전설대학
전설대학교 교사의 교육을
배령받아 문교를 연 학교로
는 말이 대학이다. 그러나
꾼도 꾸지못할 장점이 있다.
라고 학교 철설대학을
사하고 있으며, 이어서
하기를 「전설대학」은 大校
대학의 소설대학이 속에서



◇李泰圭 박사

을 대학교는 아끼고 디스 품이 와서
부로 말하면 물리과대학 理學
학과 화학과 지질학과 생물학
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것이 지금의 자연과학대학인
수학과를 비롯하여 계산통
계학과 물리학과 천문학과
화학과 식물학과 동물학과
미생물학과 大氣科學科 지
질학과 해양학과 醫藥科
齒醫豫科라는 13 학과의 빙
용을 갖추기야 이르른 것이다.
여기에는 그간 재직
하였던 수많은 교수들이 노
고가 서려 있는 것으로서
冠岳캠퍼스에 자리잡기까지
적어도 6년(1967년)에
있어서 그 불편함과 不備
함이 대단하였던 것이다.

韓基章

基

1

소한이
교도를
경주자
였다. 이별자마다 간접적
생교육이 제도에 오르는
고구려 활동도 시설 학교로
마련해 6. 25 동학리에서
고 말았다. 동학리 교회는
활용하였다. 어려운 사이 마땅히
한 교사와 간신히 간이
았던 모든 시설 도서·재료를
교수를 다 불태우고만 것이
다. 또 教授들도 몇 사람들을
잃고 학생들이 회생의 마
대한 것이다. 1953년 환도에 따라
하였으나 서둘러 봉기하는
애당초 化學科가 밭을 끊어놓고
시에 사용하였다. 藥工專
학술의 한 구통이 밖에는



◇東崖洞시대때의 文理木 科學館 只言

= 자연 과학 계통
= 13 個學 科로
= 構成

석
학부는 그의 고국에 학교를 개설한 것인
기도 하였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自然科學
大學의 大自然科學으로서 「기
초대학원」이 되어 있었던
느낌보다는 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있었을 때에는 물론이다.
그들이 있었을 때에는 물론이다.
이제 한 어려운 대학 초기
에 文理大 초대학장을 지내신
분이 李泰圭 박사이시다.
다. 어떻기 보면 그들의 자녀
연과 학대를 살피는 상
아였는지 사적 문헌이 헛
들이었다.
열전한 신문 기획이
사람은 「세계적 化學者李
泰圭博士」라고 하여 주제
사에 관하여 大畫特畫된 바
있었다. 저기에 기자의 물
물에 따른 자기 소개의

일하게 都大學에 李 선생을 고 흠모하고 있었던 서는 李 선생을 벼지고 직접 지도를 받게 된 것처럼 이만저만 기쁜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해방의 큰 성과가 되었지만, 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 75년 犀岳캠퍼스서 發足 文理大 理工學部가 뿐만 아니라

李泰圭박사 初代學長 말야 基盤다져

基礎 과학부야 각 과 받아 科學館機器로 研究 활동

農水產物流通公社

1960년대 초부터
온라인까지 이어져 내
려온 고도 경제 성장 철학
과 전신인 이론과 工業化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경제전환을
전, 그나마가 社會農村를
이루 하려면 우리 的 村
과 農業의 발전도 병
행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념을 基底로
하여 1967년 국민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農水產物의 유통과 價
格安定을 위한 기관으로
다루는 국민 설립

정서·예술·수출입·판권·사업
·유통·개선사업·식품산
업육성·사업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同支部는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이 경제발전 저해 요인으로



◇安教德 사장

건설을 주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꽃 도매 시장으로 금년 12월에 개장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정부에 질서화된 험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품산업에서는 낙후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2백 1개의 농수산물자 장가공업체에 자금지원 및 기술경영지도를 수



◇高鐵山 지부장

安教德(文理大)·社長
을 중심으로 한 동문들이 대·부장)·趙東玉(農
金振圭(農大·副社長)·高鐵山(文理大·부부장)
·支部長)·白燦玉(商
大·부장)·趙東玉(農
大·비주부장)·金應熙(農
(農大·교육사업소장)
李海淵(農大·교육원교
수)·吉亨偉(文理大·
기획관리실장)·鄭清三
(農大·서울지사장)·
趙紹均(農大·무역부장)
尹仁植(師大·금융교과
·支部幹事)·金平謙(農
大·총무부부장)·鄭鎰鑑
(法大·판매과장)·朴



新日本
支部長

同窓會 각종행사엔 全員 참석

가족분위기로 慶弔事에 적극

이·
조직
강화에
대·
무역부대리)
동문동
힘쓰고

同支部의
창립멤버로
고 있는 高鐵山^{고철산} 등부운
『최근 농산물 수입개
방 예시들로 농어촌
문제가 아직도 많이 산
적해 있지만 그동안 축
적된 경향을 바탕으로
국제시장 개방화에 농
동지으로 대처, 놓아민
소득증대에 열의를 담
당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부들을
의 휩아이 기대되고
급인력의 양성이 절실
하다」고 밝히고 많은
후배동포들의 동참을 촉
구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同支部는 농
동창회를 실시하는 각
종 행사에 적극 참
여하고 있으며 특히
동산대회에는 전통
문화로 있다.
문이 빠짐없이 참가하
고 있다.
農水產物 유통합리화
를 통해 國民經濟의 균
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農水產物流
公社은 제2의 도약
기를 마련하고 있다.
오늘도

支部總務、金熙國(慶)
恩春(慶大)、조선독립기념관

「길」은 人類의 탄생과 함께 「길」은 인류 역사의 중
요부분으로 자리잡아왔
으며 인류가 끊임없는
발달과정을 거치는 동
안 「길」 역시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 韓勳鎬 지부장



◆姜鑄益 咨早

한국도로공사는 19
69년 전부 투자 기관이
로 설립되어 올해가創
立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로 2천만대를 향한
힘찬 雄飛를 준비

後輩
여

하고
국土의 규제적인 발
전을 위하여 1968년
서울~인천간 京仁
고속도로가開通되 고 곧
이어 1970년 4백
28km에 달하는 서울~
부산간 京釜고속도로가
建設, 開通되면서
나라는 고속도로가
도로의 분계적인
전기를 맞게 되었다.

입위해 온갖 노력 집중
模範지부로 表彰 받아

고속도로를
유수의 고속도로
국으로서의 면모를 갖
추계되었다.
개통 초기에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7백 20만대
불과했으나 최근에
1억대를 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웃
50만대가 넘는 각종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도로를 해서 정성을 기울여 선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시적인 노력을 다하였던 동문회
회원들은 지난 3월에 열
린 본 회에는 정기총회에 참석
특히 지난 3월에 열
날의 자리를 이어왔다.
취임식이 있었으나 일
로 꾸준히 동문간의 만
족이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우리 회는 전국에 넓은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화상상을 보면
李魯赫(農大·시설
녹지계장)·李均學
(工大·건설부부장)·
崔泰鍾(工大·도로연구
소장)·姜龍圭(農大·
총청지사·임업과)·李
培(工大·건설사업부조
사역)·姜鍾益(工大·
기획부 조사역·支部總
務)·朴善弘(農大·전

그후湖南南海·嶺
南北 고속도로가 계속 건설되면서 국토의 개발과 산업경제, 지역사회 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우리 나라의 도로망을縱橫의 축으로 연결시키게 되었다. 11개 路線, 1천5백 60km의 현장은 전국 도로공사는 한국을 두고 각지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개설되는 道路管理所에 3천 개에 걸친 2백여명의 직원들이 각 부문에서 經營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로사업의 公益을 증대를 목표로 말한다. 은바 있고 있다. 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韓國道路公社支部는 비교적 둘째로 누가 작다는 점이다.

체	동성회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功勞가 인정되어 優秀模範支部로 표창받아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同支部는	副社長으로 재직중인 韓勳鎬 (法大) 지부장을 頂點으로 하여 支部내의 문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그 능력으로 그 우수
大·중부지사	大·중부지사 업무와 李胤基 (農大·영업부), 鄭燦猷 (工大·미국유학
주묘포장장)	黃國雄 (農大·시설물조 경과), 李貞根 (農大·건설사업부) 金性煥 (農大·도로연구소), 金仁
金榮雄 (師	培 (農大·안전계획과) 동문동 비록 수인원이지만 혼연이라가 되어 서울大友가 부임되

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계를 훼손하고 오는 날 이를 적기에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소중한 것을 다는 데에 물려줄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을 危機라고 단정하는데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 학자로 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 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국에 대한 價値觀의 혼란이 있고 있듯이 보인다. 민

教育의 危機 教師의 使命

内外의 눈

초대석 ③

그와 같은 절세가 있으며
내面化를 통해서 사회성원
들의 의식 속에 뿌리를 박
고 法規와 慣習에 의한 制
度化를 통해서 社會營造·
국民생활의 를 통하고자 한다.
고 있다. 그것은 시대와
회의 범위에 따라서 다
개별화되고 개선사주
되고 개혁되고 개선하고



金 鍾 詰

〈前母校師大教授〉

價值觀의 혼란、權威에의挑戰이不安요소
「反美가統一로 가는 길」로錯覺하는 운동권도 문제
一部過激교사 「참교육」주장에 學生들 同調

기에는 달하는 文直率을 현자와 21.7%
4부제에 없애는 일 현재의 21세
5부제 수령에 대한 지지에 대답
소시기로 5부제에 대답
서 50년에 수령으로 설립되었고
停年制을 60세까지 전국적인 20.5%
로 들어올리는 일 교육부를
로들이 지역에 대답
차별하고 그 애수도 보
직장 없는 사태를 개선하
기 위하여 빌트와 허위한
교육부를 예상하
진하고자 하였다. 5만명의
교원들이 간접相應
동을 함께 교육 문제의 해결에 예상
을 리고 있었다. 우리나라
라의 8·15 이후를 봄을 계획
한 것이었다. 東南亞의
나라에 비하면 우리의 밝전을 이
로 하였으며 그것은 우리도
한국努力에 의한 것
이었다. 이제 우리는 21세
교육의 발전과 국가
발전을 세울 하야 할 단계
에서 있다.
우리의 교육제도를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니나 모든
학교장과 교육행정가들은
모든 권한을 장악하였다. 교사를
것이다. 그것의 横威主義
로 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는 것이다. 우
국민이 그들의 손에

교사의 전부에도 류체가 이교육학과나 반교육학과나 같은
법정도 하다한 문제가 있어 사설이다. 그들이
것이 문제들은 지난 1950년에 우리들의 주권한 노동자
이나 教育風土와 社會風土 등에 보이지 않는
는 은 안 통해서 개선될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처럼 개입되어 있어서 종종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것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개선되라고 하는
루아침에 것은 절대로 대하는 구하는 革命의 인물들이나 단체들이
장에 끌고 와서 학교하고 기관에
대하는 전인 교육의 본질을
필자는 최근 印度에서 열린 W.C.O.T.P.의 亞太地域
會議에 참석하였는데 8억명
의 인구를 가진 이 휴대전화
한 나라의 교육문제가 만
만치 없었는데 눈이로 보고
피부로 느꼈다. 그들이 明治
年·즉 1990년에 세계에 「文學解説」(Inter-
解説)에

— 교육자의 責任感으로 원만한 수습을 바라
— 自律에 따른 책무 올바로 이행되는 風土 이룩돼야
— 現行法上 금지된 教員勞組 正當化 어려워 —

자이신다

。 그
에 그
전

동시에
들의
생각

使命이 교사에 <事會總

大學生會館

利用
· 結婚
·

될 것이다

同窓에 오

志 意
人 神

[View Details](#)

同志會館利用안내

서울大學

지난 3월 25일 개최된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새로 부회장으로 추대되었던 일원으로서 참석하게 된 趙南燭부회장은 새 基金 조성사업을 대를 跳躍을 위하여 대단히 노력하고자 90년에 제 2회로 요한 시기에 誠實하고 신종하며 業務에 대하여 전진하여 뛰어난 것으로 定評이 나았는 趙部회장에게 다른 기대는 자못 남았습니다. 趙부회장은 1933년 忠南扶餘신(仁)로 京畿中·高等學校를 거쳐 57년 도교 졸업한 이른바 K.S. 마법으로 불리는 엘리트 2세 경영인으로 그의 부친은

무급 전용 만 11년간 국
직에 몸담았던 趙虎희 장은 76년 官職을 떠나 三扶土建에 취임, 專務 어表理事로 81년 民正黨에 가입되었던 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
小野大의 어려운 정부

한 학자와의 소문단
趙部회장 빕풀이 없
말하기를 어 있어도 經
후퇴해서는 아 되

經濟界 출신의 國會議員

동창회 活性化 위해 협조 다짐

▲ 김병주(86년) 師大卒·한국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교·구현전집(89년) 師大卒·경희대학교(석사)교
 ■ 8월26일 오후1시~8월26일 오후1시

▲ 김병선(84년) 農大卒·한국경제신문사(기자)·원희룡(89년) 師大卒·이지시스템(주)군·강미숙(87년) 農大卒·양(88년) 양(87년) 양(87년) 양(87년)
 ■ 8월26일 오후2시30분~8월26일 오후1시

▲ 이영호(88년) 農大卒·이군(88년) 大學院卒
 ■ 8월27일 오후1시~8월27일 오후1시

▲ 김정주(88년) 大學院卒
 ■ 8월27일 오후1시~8월27일 오후1시

▲廉澤龜(49년 醫大卒·염
안파의원장·本會理事) = 長男
祐榮군이 7월 2일 오후 1시
30분 롯데에서 화족.
▲金明根(57년 工大卒·극
동건설협회 副會長·本會理事)
= 장자 미정양이 6월 30일 전
모 데리고 당에식장에서 화족.
▲임성복(社會大 資學종)
군·이선희 양 = 8월 15일 정부 구
금마고(1877 韶大卒) 구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a man with glasses, wearing a suit and tie. He is smiling slightly and looking towards the camera. The text around him identifies him as Professor Kim Chang-ho.

▲ 李錫玄(78년 法大卒) =
최근 慶化민주당 安養乙地區
黨代議員大會에서 委員長이 되었다.

同 窓 會
新 任 副 會 長 趙 南 煙

월
餘
지구
『한월성에
선출되고
나서는
더복
열심히
民願
처리등
지역구에
내려
가
인
지역봉사
활동을
치고
있다.
『전치
초
신
생
이
로
서
를

<p>▲呂運鶴(56년) 師大卒· 규 전문화사 代表) = 국동방송에 서 매일 방송되는 「사람의 대화판지」(학산 여운학방송국 련)를 「세아침의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출판。</p>	<p>에서理事로승진。</p>
<p>▲魏啓伸(58년) 商大卒) = 6월 1일자로 大韓教育保險 사육관리理事에 취임。</p>	<p>大門지점 대</p>

▲ 関東根
（50년 文
理大卒·忠
化協議會
장립동 하식을
가짐。

대한민국에서 제헌법 제34회에
한민국 헌법을 통상 시상식에서 「시상식」
이라는 이름으로 의회 자체에서
정부 수상의 연구로 자연과학과
학부문상을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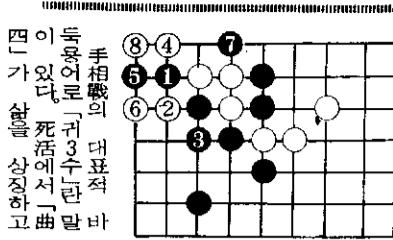
大韓

卷二十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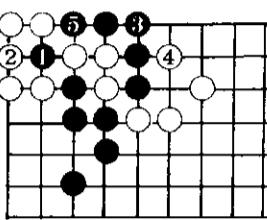
同窓會館 冠岳亭

▲廉澤龜(49년)
안파의원장·本會理事) = 長男
祐榮군이 7월2일 오후1시
30분 롯데예식장에서
화족。
●金明根(57년)
동기설(副會長·本會理事)
= 장자 미정양이 6월30일
오전 10시 30분 롯데예식장에서
화족。

揭示板



「五宮桃花」나
「宮」이 죽음에
상전하고
「국3수」란
아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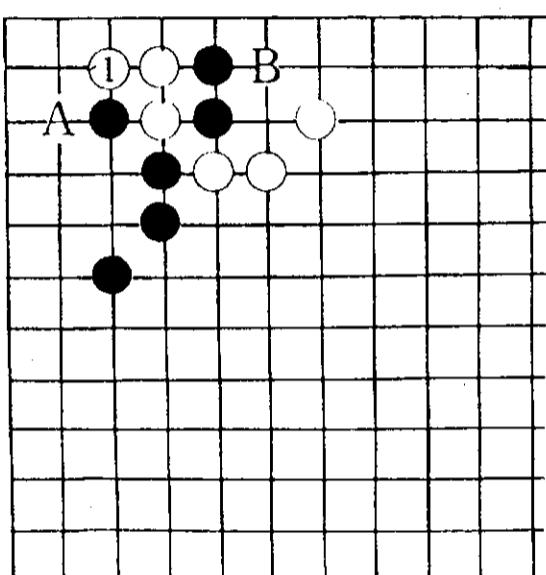
의 온갖 뛰어난
대표적 자들이
어야 할 교분이기도 하다.
한태로서 반드시 억울한

巴
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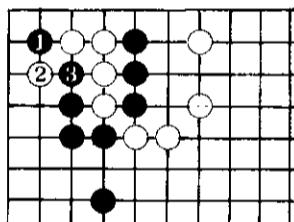
朴治文
79년人文大賞

3

〈문제도〉 黑先白死



고 3 2 1
白 黑 白 黑
마루때 수단에 히 3 3 3
때째로 인는 삼했다. 삼했다.
白은 원전에
〈동물문제〉



સુરૂ

1

自律失調症

健康교실 ②



洪文和

母校명예교수

상도
낙찰된다.
예수님에는
모를것이
분명하였다.
팔다리가
수시며
나마다
펄펄
나면
풀섶이
때문에
여쭐동안
나았기
사매고
끌끌
떨었을
때면
얼어날
있었다.
그러나
묘사는
사람이
피蠹 피동
병원에
가도
모든
설도

二二四

보통사람 보통대로 사는것이 健康法

로 되어 있다. 두 가지 신경의 작용이 규칙이 잡혔을 때가 전장이며 군 헤이 깨어지면 설조종 생겨 어려가지 종 상이 나타난다. 현대의 정보사회에 있어 서의 복잡한 인간관계가 원 인으로 조바심이 자극이 생기는 스트레스화 되어 한다. 그려면 大腦皮質에 작용 床下部→自律神經의 경로로 밟아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깨뜨리게 된

律」로 고쳐야지 약에
의한 「他律」로는 고치
못한다.

타나는 증상이다. 언제나 피곤하고 우울해 보기에는 괴병같은데도 사실이 그렇듯 어쩔게하나. 이런증상들이 '자율신경실조증'(自律神經失調症)이다. 자율신경은 植物神經이 라고도 하며 호흡, 소화, 맥박, 혈액순환등을 주관하는 신경계통이다. 자율신경과 副交感神經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반대

